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Creating and Managing Local Oral Records in Busan

배 은 희 (Eunhee Bae)*

목 차

| | |
|--------------------------|--------------------------|
| 1. 서론 | 3.2 구술기록 생산 현황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3 구술기록 관리 현황 |
| 1.2 연구방법과 범위 | 3.4 문제점 |
| 1.3 선행연구 | 4. 부산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개선방안 |
| 2. 이론적 배경 | 4.1 조사개요 |
| 2.1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와 특성 | 4.2 구술기록 생산 개선방안 |
| 2.2 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 | 4.3 구술기록 관리 개선방안 |
| 3. 부산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1 조사개요 | |

<초 록>

국내 구술사 연구는 1980년대 중후반 현대사 진실 규명을 위해 시작되었다.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기록이 다수 생산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과 마을에 대한 구술 사업이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의 예술가 구술생애사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개 공공기관에서 33건의 구술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역민의 기억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데 구술사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 사업에서 1차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향후 연구자료로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부산지역의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구술기록을 지역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구술기록, 지역, 부산구술사업, 구술기록생산지침, 기록관리

<ABSTRACT>

Oral history research in Korea began with the effort to find out the truth behind the hidden historical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e mid-1980s. Since then, attempts to record the major issues through contemporary Korean history orally has increased. From the late 2000s, the focus shifted to local and smaller village units. In Busan, from 2009 to 2016, 33 oral history projects from 10 government agencies were conducte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hat kind of oral records has been produced in Busan from the said period and how they are managed. With these findings, possible solutions to preserve and utilize the oral records as the locality archives are suggested.

Keywords: oral records, local, oral history project in Busan, guide to doing oral history, records management

* 기록 & 출판 <빨간집> 대표(bbyang95@gmail.com)

■ 접수일: 2018년 4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85-108,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2.08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구술연구가 지식인들과 사회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며 국가기관으로 구술연구의 주체가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강제동원, 제주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한국의 근·현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기록들이 다수 생산되었다(손동유, 권용찬, 2013).

국내 기록학의 역사가 길지 않고 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학 분야에서는 구술사 연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구술기록이 증가하면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아카이스트의 역할과 비중이 늘어났으며 기록학적 관점으로 구술기록에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최초로 구술을 활용한 지방지인 『이천사지』(2001) 발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과 마을 관련 구술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지역과 마을단위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었다. 그렇게 수집된 이야기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커졌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스토리텔링 사업 등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 사업들에서 구술이 활용된 사례가 늘어났다.

지역사, 마을사 관련 조사와 연구는 최근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고,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지역단체 및 공동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민간단체인 부산구술사연구회와 국립부산국악원이 2009년 구술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2016년까지 10개의 공공기관에서만 33건의 구술사업이 진행되었다. 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 구술사업에는 지역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지역 공동체 주민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구술사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점도 보였다. 구술기록 생산 유형이 사업목적과 면담자에 따라 다르고 구술기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1차 자료와 법적·윤리적 서류 등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으로 단행본과 같은 가공된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1차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어떠한 구술기록을 생산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구술기록을 지역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과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했으며, 부산지역 구술사업 현황조사를 위해 구술사업

관련 자료 분석과 사업담당자 면담을 실시했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자 심층면담 내용을 참고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구술기록의 개념과 지역 구술기록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 및 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부산의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부산에서 10개 공공기관이 진행한 33건의 지역 구술 사업을 조사했다. 사업 수행 주체가 전문연구자인 사업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진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했다.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조사하고, 이 중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4명과 수행단체 담당자 8명, 총 12명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면담, 서면면담의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현황과 구술기록의 의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부산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구술 사업 경험이 있는 연구자 4명과 부산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방안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부산지역의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심층면담 내용을 참고했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와 구술기록의 생산·관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로 염미경(2006)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경

험과 생활은 국가 전체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구술사는 역사와 지역 공동체간의 관계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택림(2012)은 지방지들이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민의 경험을 기록하려는 시도에 구술사 인터뷰 또는 생활사 연구가 포함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지방사 연구와 지방지의 관계 및 구술사의 역할을 경기 남부 지방지의 사례를 들어 연구했다. 국가 및 중앙정부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민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데 구술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주혁(2012)은 2000년대 이후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과 근현대 지역자료(문헌 및 구술자료)가 전근대에 비해 수집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현대 지역자료의 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근현대 지역자료는 '의미 있는' 학술자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수요에 다양한 자양분이 된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에 '지역'을 보는 관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연구로 권미현(2004)은 석사논문에서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에 대해 연구했고, 2007년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에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연구로 내어놓았다. 강제동원 구술기록 생산단계의 조사기획과 생산절차를 짚어보며 어떠한 기록물이 생산되었는지 유형과 서식을 보여주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관리·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이정연(2009)은 구술사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기록의 내용과 형태를 정보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술기록을 구조화 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다. 구술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술 과정에서 어떤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지와 생산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물의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용성(2010)은 구술조사의 사전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효과적인 수집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집 절차가 적합한지와 사전 기획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가 생산 이후 구술기록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동유, 권용찬(2013)은 구술내용의 맥락 확보를 위해 구술기록 산출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구술 단계별 매뉴얼과 그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는 산출물의 서식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산출물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방법과 지침 사례를 제안하고 있으며 구술기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기록학계에서 기록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구술기록의 의미와 관리방법, 지역 구술기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표현되는 기록학계의 관심이 좀 더 가까운 곳, 작은 곳으로 향하면서 구술기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술기록의 생산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지역 구술기록이 어

떻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와 특성

2.1.1 구술기록의 개념

기존 연구에서 구술을 통해 생산된 구술기록을 부르는 용어는 '구술기록', '구술사료', '구술자료', '구술사 기록물' 등 다양했고 음성, 영상자료와 같은 1차 자료와 그 이외에 생산되는 2차 자료의 구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부분 음성과 영상자료와 같이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생산된 1차 자료를 구술기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권미현의 연구(2004), 이정연의 연구(2009),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녹취문, 면담일지 등의 산출물들을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다. 『기록학 용어사전』에서는 구술기록의 영문표기를 일반적으로 구술사를 뜻하는 'Oral history'로 사용하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명훈(2010)과 최정은(2011)이 제시한 것처럼 '구술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에 '구술기록'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구술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 의미를 가지고, 당대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문헌연구의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료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가진다. 음성자료, 영상

자료를 1차 자료, 이와 상호연계성을 가진 자료인 녹취록, 구술자·면담자 신상기록부, 면담일지, 구술활용동의서, 이용허가서, 사진, 박물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2차 자료로 구분하고자 한다. 2차 자료 내의 구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연구결과물 표준화 지침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2.1.2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

리처드 콕스는 지역을 “문화, 정치, 사회경제, 역사 또는 기타 이유로 개개인이 동질성을 느끼는(이웃에서 카운티나 시,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지리적 영역”이라고 정의하며 지역을 정의하는 요소로 커뮤니티, 경제, 역사 발전, 지각(perception), 인구, 사회양상, 문화, 지리, 경관, 정치, 종교, 기술 등을 언급했다(Richard Cox, 1996).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는 중앙중심의 종속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그 자체의 독립적 개념을 가진 대안적 용어로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석규, 2008, 『지방사연구입문』, 서울: 민속원). 부산대학교 로컬리티 연구단에서는 위계적 질서가 적용되는 ‘지방’과 수평적인

힘이 작동하는 ‘지역’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로컬(local)’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나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의 개념을 포함시켰다(차철욱, 2016). 종합해 볼 때 지역은 국가 속의 지역, 중앙중심의 종속적 관계에서의 지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다층적인 분야에서 동질성을 느끼는 구성원이 속한 지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인 서울이나 서울지역 내 마을이나 공동체의 경우도 독자적인 지역으로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 구술기록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던 지역 기록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주체와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 구술기록은 특정 범위의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의 경험, 공동체의 활동, 지역의 역사 등 지역민의 경험과 기억을 지역민의 입장에서 말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서전, 공동체 생활사, 기성세대의 기록, 지역명칭의 기원, 혹은 사회운동가의 생애사, 지방민의 전쟁경험, 이주민의 생애사, 민속 등 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다. 지역을 기록할 때 국가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할 때 국가 구술기록이 될 것이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독자적인 경험과 기억을

<표 1> 구술기록의 종류

| 구분 | 종류 |
|-------|---------------------------------------------------------------------------------------------------------------------------------------------------------------------------------------------------------|
| 1차 자료 | 음성자료, 영상자료 |
| 2차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 정보 자료: 구술 사업 개요, 구술자·면담자 신상기록부, 질문지, 면담일지, 구술자료 상세목록, 녹취문, 박물자료 등 구술 내용 관련 모든 유형의 자료 • 법적·윤리적 자료: 구술동의서, 구술공개 및 활용동의서, 검독확인서, 비공개 내역서 등 |

기록하고 분석할 때 지역 구술기록이 될 수 있다. 개인 자서전과 같은 개인 기록은 특정 지역 내에서 경험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을 때 개인 구술기록이 지역 구술기록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정리한 지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최근까지 생산된 지역 구술기록의 성격을 분석하여 지역 구술기록의 개념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설문원(2015)은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증거 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것이며,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역 기록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의 변화와 맥락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및 중앙정부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민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데 구술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윤택림, 2012). 문헌에 기록되어있지 않거나 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할 때 지

역민의 기억은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염미경(2006)은 지역민의 기억을 담은 구술자료 수집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역사와 지역정체성이 만드는 지적 창조과정이라고 서술했다. 조용성(2010)은 다양한 종류의 구술은 지역 아카이브 활성화의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콘텐츠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구술기록은 지역민의 기억과 증언에 근거해 도시와 마을의 생성과정을 밝히고 그 속에서 어떤 경험과 감정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지역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역민의 언어로 발굴된 지역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이 된다는 데에 지역 구술 사업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역 구술기록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향후 활용을 위해 구술의 내용을 증거하고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1.3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

구술기록이 일반적으로 ‘구술성’, ‘주관성’, ‘공동작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더불어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표 2> 지역 구술기록 개념

| 구분 | 내용 |
|-----|----------------------------------------------------------------------------------------------------------------------------------|
| 범위 | 마을, 시민단체, 공동체, 시·구·군 단위 등 |
| 주체 | 지역민이 경험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서술한 지역사(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등), 특정 시기 또는 사건에 대한 지역사와 국가사 관련 지역민의 집단기억 또는 개별기억, 지역 소재 공동체, 민속문화, 지역 인물, 지역 공간 등 |
| 대상 | 위 주체와 관련된 경험과 기억을 가진 전·현 지역민 |
| 생산자 |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회단체 및 공동체, 지역민 ※ 사업주체가 국가단위 공공기관인 공모사업에 지역단체 또는 지역민이 참여한 경우 지역 구술기록으로 포함 |

먼저 지역 구술기록은 지역 연구의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문헌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있는 자료마저 기관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우가 많다(염미경, 2006). 마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신문기사에서 마을은 도시정책 관련 보도나 범죄, 자연재해 등 사건이 있을 때에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연구하는 데에 지역민이 말로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 기억을 담은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두 번째로 지역 구술기록은 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산된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진행되었던 국내 구술기록은 주로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이끌었던 엘리트, 지식인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 연구를 할 때는 자신의 역사를 남기지 못하는 일반 지역민의 경험이 중요하다. 지역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삶이 기록됨으로써 지역민들은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된다(윤택림, 2012).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명망가 또는 지역 정책 입안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 또한 지역민에 포함되고 지역사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구술대상이 된다. 많은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구 주제에 맞는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엘리트 또는 명망가는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자서전을 쓰거나 타인에 의해서 기록되는 등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술자로 섭외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경우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면담 수락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구술자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로 지역 구술의 주요 내용은 생활사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경제, 문화, 사회 등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개인의 생활사에 기반해서 연구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술기록은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주로 지역의 연구자 또는 지역민이 주요 주체가 된다.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기 지역민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자신과 다른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의 이야기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민 간의 소통과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에 따라 지역 구술기록은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단체나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직접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2.2 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

첫째, 지역 구술기록은 향후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 지역 구술기록은 각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에 의해 생산되지만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시민 교육을 위해 출판물이나 영상 등의 문화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에서 어떤 구술기록이 생산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현황조차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신뢰성을 갖춘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 구술기록은

구술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차 자료와 더불어 구술이 생산된 맥락을 보여주는 구술 정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가 지역 구술기록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구술기록 과정에 생산된 기록물들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구술 생산의 맥락을 확보해준다. 이러한 맥락 확보가 구술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구술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으로 구술내용을 재구성한 결과물을 제작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어 1차 자료인 음성 또는 영상자료와 생산맥락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 생산되더라도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향후 유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셋째, 구술기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윤리적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 구술은 한 개인의 삶의 체험과 감정 등을 말로 풀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자료보다도 활용 과정에서 까다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관리와 활용』, 서울: 선인출판사) 구술기록 생산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 구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술자의 인격권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지역 구술기록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 중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 지역 연구자나 지역민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마다 지역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시기를 확신할 수 없고 구술기록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술기록을 관리할 주체마련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에 실시한 『구술기록물 종합관리체계 방안 및 구술 방법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적 수준에서 구술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록원이 유일하다고 보고 국가기록원 산하의 구술사 아카이브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구술기록 사업을 진행한 한국학중앙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연구와 모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구술기록의 특성에 맞게 기록을 관리하고 서비스할 구술 아카이브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연구나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와 특성에 따라 지역차원의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당면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가치 있는 구술기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지역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을 관리할 주체 마련이다. 이 논의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부산지역의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부산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분석

3.1 조사개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부산의 10개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33건의 구술 사업을 조사했다. 설화, 민요 등을 수집하는 구전은 제외하고 구

술생애사와 구술증언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구술 사업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조사하고 구술 사업을 진행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 선정했다. 특히 공동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구술 사업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된 만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주목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조사하고, 이 중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4명과 수행단체 담당자 8명, 총 12명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면담, 서면면담을 진행했다. 심층면담자는 전체 사업 중 29개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이다. 문서 분석을 통해 사업의 개요와 목적을 파악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구술기록의 의미와 관리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부산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3.2 구술기록 생산 현황

3.2.1 구술 사업 현황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개의 공공기관이 33건의 사업을 통해 410여명에 대한 구술기록을 생산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진행된 구술 사업의 수는 매년 조금씩 늘다가 2016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대신 구술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수는 매년 조금씩 확대되었음을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구술 사업이 증가한 배경과 형태 관련해서는 각 구술 사업의 목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 조사 방법과 대상

| 구 분 | 조사내용 |
|------|--------------------------------------------------------------------------------------------------------------------------------------------------------------|
| 자료조사 | - 대상: 구술 사업관련 문서, 결과물, 신문기사 - 방법: 사업기관 또는 사업 수행단체를 통해 사업계획서 수집, 분석 - 목적: 사업개요 및 목적 조사 |
| 심층면담 | - 대상: 4개 기관 사업담당자, 8개 수행단체 담당자 총 18명 - 방법: 직접 면담, 전화 면담, 서면 면담의 형태로 진행 - 면담시기: 2017년 5월 19일 - 9월 9일 - 목적: 사업배경, 구술기록 생산·관리현황 조사, 구술기록 의미와 관리에 대한 인식 |

<표 4> 심층면담 대상

| 구 분 | 대상 | 소속 | 대상 | 소속 |
|-------------|----|---------------------|----|--------------------------|
| 사업기관 담당자 | A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C | 부산박물관 |
| | B | 국립부산국악원 | D | 부산발전연구원 |
| 수행단체 담당자 | E | 플랜비협동조합-부산시 용역사업 | I | 온천동 사랑회-부산시 공모사업 |
| | F | 미디토리협동조합-부산시 공모사업 | J | 동구문화인력-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
| | G | 호밀밭 출판사-수영구청 용역사업 | K | 경성대한국학연구소-부산시사편찬위원회 용역사업 |
| | H | 문화공간 빈빈-부산문화재단 공모사업 | L | 맨발동무도서관-부산문화재단 공모사업 |

〈표 5〉 공공기관별 구술 사업 현황

단위: 사업건수(인원수)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 부산국립국악원 | 1(1) | 1(1) | 1(1) | | | 1(4) | | 1(3) | 5(10) |
| 부산시시사 편찬위원회 | | 1(8) | 1(8) | 1(7) | 1(6) | 1(6) | 1(9) | 1(8) | 7(52) |
| 부산문화재단 | | | 1(26) | 1(17) | 1(19) | | | 1(15) | 4(77) |
| 부산시 창조도시국 | | | | | 1(3) | | | 3(52) | 4(55) |
| 임시수도기념관 | | | | | 1(3) | 1(33) | 1(17) | 1(6) | 4(59)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센터 | | | | | | 1(43) | 2(12) | 1(9) | 4(64) |
| 부산수영구청 | | | | | | | 1(21) | | 1(21) |
| 부산해운대구청 | | | | | | | | 1(9) | 1(9) |
| 부산영도구청 | | | | | | | | 1(20) | 1(20) |
| 부산시 해양수산국 | | | | | | | | 1(25) | 1(25)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동구청 | | | | | | | | 1(18) | 1(18) |
| 합 계 | 1(1) | 2(9) | 3(35) | 2(24) | 4(31) | 4(86) | 5(59) | 12(165) | 33(410) |

3.2.2 구술 사업 성격

구술 사업 성격은 연구기관의 지역사 연구, 지역단체 및 공동체가 지역에 대한 호기심으로 진행한 지역조사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생활문화조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3.2.2.1 연구 기관의 지역 연구

부산 민간단체로는 부산구술사연구회가 2009년과 2010년 사이 먼저 아미동 비석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에 구술을 활용했고 공공기관으로는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이 지역의 원로 춤꾼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연구를 처음 시도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정체성 연구와 미시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3년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부산학연구센터가 설립되고 2007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내에 로컬리티 연구단이 만들어져 부산학 연구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구술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 2009년 ‘부산구술사연구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이 2011년에 발간된 『이향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아미동 사람들』이다. ‘부산구술사연구회’는 이후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부산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구술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술생애사 사업을 통해 국립부산국악원총서 『김진홍의 삶과 예술』, 『청화당 김은경의 삶과 예술』, 『문장원의 삶과 예술』을 발간했고, 2014년과 2016년 국립부산국악원총서 <근현대부산국악사1,2> 발간사업에서 신문기사와 함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술자료와 관련 자료를 담았다.

이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와 임시수도기념관, 부산발전연구원 등 부산의 연구기관들이

구술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부산광역시시편찬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매년 한 마을을 선정하여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임시수도기념관 또한 문헌사만으로 역사기록을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역 연구에 구술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3년 『부산 밀면 이야기』 발간과 2014년 학술연구총서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 발간으로 지역에서 도시생활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에도 매년 마을 또는 공간과 관련한 연구에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014년부터 총 7차례 진행한 '마을학포럼'에서 '마을', '기록', '구술생애사' 등의 주제들이 논의되면서 부산지역 연구자들 내에서 마을기록의 중요성이 공론화 되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가 진행한 '마을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마을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마을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에 마을기록 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성마을과 증산마을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피란수도 연구 사업을 통해 지역 구술을 수집했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연구팀을 구성해 부산의 원양어업 60주년 기념을 위한 기초조사와 향후 콘텐츠 활용을 목적으로 '부산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원양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수집했다.

3.2.2.2 지역단체 및 공동체의 지역조사

연구기관의 구술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지역단체 또는 공동체가 구술 사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연구의 개념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기록수집 단계까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화명동 대천마을의 맨발동무도서관이 마을 도서관이 마을 아카이브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옛날 사진을 매개로 한 구술 사업을 진행했다. 그 이전에는 인문학공동체인 (사)문화공간 빈빈이 1세대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3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서 매축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술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시의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2013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산리협동조합이 지역 주민들의 생애사 수집을 진행했고, 2016년 동구민간단체협의회에서 마을해설사 양성을 목적으로 구술 교육사업과 동구지역 주민 구술 수집을 진행했다. 부산시 창조도시국의 또 다른 사업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를 통해 온천동 사랑회가 기존 기록에 없는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수집하지는 취지로 '마을작가학교'를 열고 지역 주민의 구술을 수집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의 인문학골목길 조성 공모사업에 청사포이야기만들기주민모임이 지원해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스토리텔링 사업을 목적으로 청사포 해녀를 대상으로 한 구술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동구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전문인력 기획사업'으로 지역의 이야기 콘텐츠 생산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 구술 사업을 진행했고, 부산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 중 하나로 영주귀국 정책으로 부산 정관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생애와 실상을 보여주는 전시를 위해 구술 사업이 진행되었다.

3.2.2.3 도시재생을 위한 생활문화조사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사업인 생활문화조사사업에서도 구술수집이 진행되었는데, 부산시의 깡깡이예술마을 조성사업과 부산수영구청의 수영팔도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두 사업 모두 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사업 참여자들이 마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 마련과 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우는 기관보다는 사업 수행단체의 입장과 의지로 진행되었다.

영도구청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흰여울문화마을의 생성에 대한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구술 사업을 진행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상 기초조사로 진행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3.2.3 구술 사업의 주제

구술 사업의 각 주제는 부산의 마을, 피란생활사, 문화예술사, 산업·경제사, 음식문화사, 민속문화, 장소와 공간, 국가근현대사 등 다양했다. 마을의 범위는 자연마을과 행정체계인 동 단위와 구 단위를 묶었다. 각 구술 사업은 하나의 주제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어서 큰 주제별로

구분하고 그에 속하는 사업 대상을 중복 표기하여 <표 6>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중에서 마을사를 다루는 구술 사업이 다수였는데, 이 중 흰여울문화마을, 우암동, 부산 동구지역이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중복으로 구술 사업 대상지가 되었다. 깡깡이 예술마을, 부산 동구지역 마을, 산복도로, 안창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매축지마을, 수영팔도문화마을 등 대부분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였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개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새롭게 생기는 반면 부산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속도로 낙후되는 지역이 생겼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러한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기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연구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부산 동구마을, 온천동, 대천마을, 매축지마을과 같이 지역단체나 공동체가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의 분권화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주제로 구술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

<표 6> 부산의 구술 사업 주제 분류

| 주제 | 내용 |
|--------|--------------------------------------------------------------------------------------------------------|
| 마을사 | 깡깡이 예술마을, 부산동구마을, 온천동, 안창마을, 물만골, 돌산마을, 태극도마을, 흰여울문화마을, 수영팔도문화마을, 중산마을, 산성마을, 우암동(2건), 대천마을, 매축지마을(2건) |
| 피란생활사 | 피란생활사, 피란수도 문화예술, 부산동구마을, 산복도로, 태극도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부산밀면 |
| 문화예술사 | 피란수도 문화예술, 예술가 생애사, 근현대부산국악사 |
| 산업·경제사 | 원양어업 60년, 깡깡이 예술마을 |
| 음식문화사 | 부산밀면 |
| 민속문화 | 청사포 해녀 |
| 장소·공간 | 보수동책방골목, 캠프 하야리아, 산복도로 |
| 국가근현대사 | 원양어업 60년, 부산거주 사할린 동포 생애사, 피란생활사 |

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3.2.4 구술기록 유형

각 기관에서 생산한 구술기록 유형은 <표 7>과 같다. 대부분 1차 자료인 음성 또는 영상과 일을 생산했으며 사진과 녹취문을 기본으로 생산했다.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생산한 기관은 총 15개 사업에 불과했다. 이외에 면담 일지와 메모가 생산되었다.

부산문화재단 사업 중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 부산시 창조도시국의 ‘2013년 부산시 산복도로 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그리고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 부산시 해양수산국의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중 일부는 음성자료나 영상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메모로 원고를 서술했다.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문화공간 빈빈은 구술생애사 수집사업에서 대상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음성 녹음이나 영상촬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리협동조합이 진행한 ‘2013년 부산시 산복도로 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또한 구술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자료와 메모만으로 주민들의 생애사를 정리했다고 했다.

부산시 해양수산국의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일부 인터뷰에서 1차 자료가 생산되지 않았다.

이 세 단체가 생산한 기록의 경우 구술을 활용하여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구술기록의 기본 특성인 구술성을 갖춘 1차 자료를 생산하지 않아 온전한 구술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구술기

록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과 함께 향후의 활용성을 생각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결과물만을 염두에 둔 사업진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연구자가 아닌 지역단체나 공동체, 작가 등이 참여한 사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는 15개 사업에서만 생산하고 있었다. 연구기관인 임시수도기념관은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국립부산국악원의 경우도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역단체나 공동체의 경우 모두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의 맨발동무도서관은 추후 다른 사업을 할 때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생산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물 발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단체나 공동체의 경우 대부분 해당 사업에 활용한다는 사실만을 구두로 알리고 있을 뿐 동의서를 받는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는 유일하게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기록물 생산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면담일지와 면담후기, 면담자 신상카드 등 구술의 생산맥락과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3.3 구술기록 관리 현황

3.3.1 구술기록 관리주체

수행단체가 생산된 구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사업기관 중 구술기

<표 7> 사업별 구술기록 유형과 활용 유형

| 사업기관 | 년도 | 사업명 | 구술기록 유형 | |
|-----------------|-----------|-------------------------------------------------------------------------------------------------------------------------------------------------------------|-----------------------------------------------------------------------------------------------------|------------------------|
| 부산시 | 창조 도시국 | 2016 | 깡깡이 예술마을조성사업 - 생활조사사업 • 음성파일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면담일지 • 사진 • 박물 |
| | | 2016 | 산복도로 생활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공모사업 • 음성파일 • 녹취문 | • 질문지 • 사진 |
| | | 2016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다시 피어나는 '온정' 마을작가학교 • 음성파일 • 녹취문 | • 메모 • 사진 |
| | 해양 수산국 | 2013 | 2013년 부산시 산복도로 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 메모 • 사진 | |
| | 2016 | 부산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음성파일(일부) • 영상파일 • 녹취문 |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면담일지 • 사진 | |
|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 2010-2016 | 부산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학술용역: 안창마을, 물만골, 태극도마을, 매죽지마을, 흰여울마을, 우암동 주민생활변천 구술조사·수집보고서 • 음성파일 • 영상파일 • 구술요약 • 녹취문 • 구술 동의서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면담일지* | • 면담후기* • 구술자 약력 • 구술자 신상카드 • 면담자 신상카드* • 상세목록 • 사진 ※ *표시되어있는 기록은 2015년부터 생산하지 않음 | |
| 국립 부산국악원 | 2009-2016 | 국립부산국악원총서 1-5 • 음성파일 • 녹취문 • 사진 | |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2014-2016 | • 부산학연구총서(『6.25 피란생활사-피란민의 삶과 기억』,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피란문화예술 1023』) • 부산학미래연구(『증산마을 이야기』, 『오래된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 • 음성파일 • 녹취문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사진 • 면담일지 | |
| 부산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 2013-2016 | 학술연구총서 부산도시생활사자료조사 사업 • 음성파일 • 영상파일 • 녹취문 | • 메모 • 사진 | |
| 부산수영구청 | 2015 | 수영팔도문화마을 조성사업-생활조사사업 • 음성파일 • 녹취문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면담일지 • 사진 • 박물 | |
| 부산영도구청 | 2016 |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대백과> 발간 사업 • 음성파일 • 녹취문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면담일지 | • 구술자별 요약문 • 구술자 신상기록부 • 질문지 • 사진 | |
| 부산해운대구청 | 2016 | 2016년 인문학골목길 조성 공모사업 - '도심형 어촌마을 청사포 스토리텔링' • 음성파일 • 녹취문 • 사진 | | |
| 부산문화재단 | 2016 |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 - 사할린 동포 아카이브전 • 영상파일 • 사진 | | |
| | 2013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 음성파일 • 녹취문 | • 메모 • 사진 | |
| | 2011-2012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 • 메모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6 | 한국문화예술위 2016년 문화 전문인력 기획사업 - 부산동구 오롯이 이바구로 기록하다 • 음성파일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질문지(체크리스트) | • 면담이력 및 구술자 기본정보 • 메모 • 사진 | |

〈표 8〉 구술기록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기관 수 | 사업기관명 |
|------|------|-------------------------------------------------------------------------------------------|
| 사업기관 | 3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부산국악원 |
| 수행단체 | 7 | 부산시 창조도시국, 해양수산국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수영구청 부산영도구청 부산해운대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록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부산국악원 3개 기관인데 이중 국립부산국악원은 직접 수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술기록 원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부산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은 수행단체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의 경우 파일 형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고 영상, 사진 등은 CD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연구자가 요구할 경우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생산현황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산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은 구술기록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향후 기관의 전시에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외 연구자들이나 타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생산된 구술기록이 개인 소장하는 형태여서 타 연구자의 기록 재활용이 어렵고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 단행본 등 결과물만 보존하고 구술기록 원자료는 유실될 위험성이 높았다.

3.3.2 구술기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3.2.1 사업기관

사업기관은 구술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목적에 따른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구술기록 관리에도 1차적 책임을 가진다.

공공기관 중 부산시사편찬위원회만 유일하게 과업지시서의 형태로 생산해야 할 구술기록을 명시해 놓고 수행단체로부터 이관 받고 있었으며 구술자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연구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술기록의 관리와 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필요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단체로부터 구술기록을 이관 받더라도 활용과 서비스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3.3.2.2 수행단체

수행단체는 사업기관이 설계한 사업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하는 경우와 사업기관의 공

모사업에 구술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진행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입장에 따라 구술기록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다.

사업기관의 사업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하는 경우 아카이브 목적으로 구술기록 생산과 이관 지침이 있다면 생산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구술기록을 생산하겠지만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모사업으로 구술 사업을 진행한 수행단체의 경우 대부분 구술기록 원자료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외적으로 맨발동무도서관의 경우는 마을 자료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아카이브를 고민하고 있으나 예산문제와 인력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4 문제점

부산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을 살펴 보았다. 연구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의해 생산된 구술기록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역단체나 공동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구술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을 주제로 한 구술 사업이 많았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결과물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 영상 등과 같은 가공된 결과물 제작이 중심인 구술 사업이어서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원자료를 사업기관이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술기록의 개념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 구술기록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음성이나 영상과 같은 1차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 문제는 구술기록의 개념과 1차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온다. 1차 자료를 통해 구술자의 감정 흐름을 알 수 있고, 구술자가 풀어내는 이야기의 순서나 반복 정도에 따라 구술자가 생각하는 기억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차 자료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데 편의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걸러 활용하는 결과물은 구술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사업에서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술기록인 구술정보 자료와 법적·윤리적 자료를 생산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구술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향후 구술기록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거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써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향후 구술기록이 재활용되고 서비스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구술기록을 생산하더라도 사업기관이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하더라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일부 기관 외에는 구술기록의 원자료를 연구자 또는 수행단체가 가지고 있고, 기관에서는 결과물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자 또는 수행단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원자료는 보관 주체가 알리지 않는 한 누구도 볼 수가 없으며 다른 연구자가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다. 수행단체의 경우 구술 기록 원자료 유실의 위험성도 있었다. 사업기관이 구술기록 원자료를 이관 받더라도 활용을 위해 생산현황이나 활용방법을 홍보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셋째, 앞의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역 구술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지역에서 구술 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생산하는 주체가 다층화 되고 있는 반면 이런 기록들이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생산과정부터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산된 구술 기록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지역 구술기록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산지침을 제안하며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할 주체마련이 필요하다.

4. 부산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 개선방안

4.1 조사개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구술 사업 기획과 실행에 다수 경험이 있는 관련 연구자 4명을 대상으로 지역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의견을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하고 참고했다. 지역 구술기록 생산지침의 필요성과 지역 구술기록 관리 방안에 대해 반구조화 방식의 질문으로 진행했다.

4.2 구술기록 생산 개선방안

구술기록 생산현황에서도 보았듯이 마을 관련 주체가 다수를 이루는 구술 사업은 지역 분권과 지역연구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도시개발과 재생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부산시사편찬위원회와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박물관 등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연구를 추진할 예정이고 지역단체와 공동체의 지역 조사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술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구술 사업과 지역단체와 공동체의 비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구술 사업 성격에 따른 생산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자료로써 활용과 관리를 위한 생산 지침마련의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공공기관에서의 구술기록 생산 지침 마련

구술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연구기관과 지자체 기관, 문화기관 등 다양했다. 각 기관에 따라 구술 사업의 취지가 다르고 사업 유형이 달라 생산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

〈표 9〉 연구자 심층면담 대상

| 면담대상 | 소속 | 면담대상 | 소속 |
|------|---------|------|----------------|
| A | 부산박물관 | C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 B | 부산발전연구원 | D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

※ D와 E의 경우 구술 사업 현황 면담자와 중복됨

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을 공공기록물의 범위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진행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하며 구술기록은 개인의 기억을 수집한 결과물이지만 지역의 집단기억과 정체성 연구를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로 지역 공공기관에서 보존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이다. 기관마다 기록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술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구술기록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재생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역의 집단 기억과 변화의 과정을 담은 ‘생활문화지표조사’로 지역을 기록화 하도록 의무화 하고 여기에 구술 사업에 대한 생산 지침이 추가될 수 있다.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지자체 주도의 구술사업과는 달리 연구기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연구에 구술연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 활용을 더 고려해야 하고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구술기록 생산 범위를 정하되 구술의 원자료, 생산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와 같이 구술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적·윤리적 자료 등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기록에 대해서 자체 지침이 필요하다.

4.2.2 지역단체 및 공동체를 위한 지침 마련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들은 비전문가가 수행한 구술 사업에서 생산된 기록을 구술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맨발동무도서관과 같이 지역 기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진행한 사업의 경우 비전문가가 진행한 구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록의 가치가 없다고 확언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구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전문가가 생산한 자료들은 평가과정을 통해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술기록을 생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단체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 마련은 우선 지역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구술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구술기록 생산 방식을 정리하여 구술기록 생산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의 여러 구술 연구소들은 축적해온 연구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¹⁾ 이처럼 지역의 연구기관 또한

1) UCLA 도서관 구술사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UCLA 학생, 교수진, 직원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지역 공동체에 구술 수집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및 오디오 레코딩 팁, 인터뷰 기법, 인터뷰 팁 등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http://oralhistory.library.ucla.edu> (2018년 5월 20일 검색) 이 외에도 미국구술사협회에서는 Web Guides to Doing Oral History라는 카테고리에서 미국 내 구술연구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구술사 방법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다. <http://www.oralhistory.org/web-guides-to-doing-oral->

기존연구의 성과들을 시민교육으로 환원한다면 지역단체와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침의 내용은 구술기록 생산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산해야 할 기록물의 지침은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유행처럼 증가하는 구술 사업을 단순히 녹음기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려면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면담자가 필요한 내용만 취하는 약탈적 구술 방법이 아니라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 있는 구술 내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인터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엘리트나 유명인사를 인터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술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대상을 직접 물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의 향토사학자, 지역 주요 단체, 주요 원로 등 구술대상 선정을 위해 먼저 접촉해야 하는 대상과 접촉방법,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과 같은 인터뷰 대상 표집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 구술 사업의 경우 불특정한 대상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구술사 아카이브(East Midlands Oral History Archive)의 경우 면담자의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을 인터뷰 방법에 포함하기도 한다.²⁾

음성 또는 영상파일을 단순히 구술내용과 현장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생산한다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음성청취 서비스나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등의 활용까지 고려해 생산해야 하는 자료라면 장비의 사용 방법도 알려주어야 한다.

구술 사업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적인 경험과 기억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술기록의 특성에 따라 기록하고 공개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구술자에게 구술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연구자료 또는 콘텐츠로 활용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술 사업의 결과물이 향후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생산해야 하는 필수기록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그 대상을 제시해야 한다.

필수 생산 기록물을 <표 10>으로 정리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간소화했다. 기존에 제시한 자료 내용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기록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위해 생산해야 내용 등은 제외했다. 1차자료는 가장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자료이며 더불어 구술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구술자의 신상기록부와 구술의 생산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술 사업 개요, 면담일지, 질문지, 사진 등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비전문가가 구술 사업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술자 신상기록부는 개인의 업적과 관련한 이력이 중시되는 엘리

history/ (2018년 5월 20일 검색)

2) 이스트미들랜드 구술사 아카이브(EMOHA)의 홈페이지에 Oral History Information Sheets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https://www.le.ac.uk/emoha> (2018년 5월 20일 검색)

〈표 10〉 구술기록 필수 생산 기록물

| 구분 | 종류 | |
|-----------|----------------|------------------------------------------------------------------|
| 1차 자료 | 음성파일 동영상파일 | |
| 구술 정보 자료 | 구술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구술지역, 구술자·면담자 명단, 주요 주제 등 |
| | 구술자 신상기록부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가족사항, 주요약력 |
| | 상세목록 | 구술자·면담자명, 면담일시, 녹음 시간, 감독자, 구술개요, 주요 색인어, 시간별 구술 상세 내용 |
| | 면담일지 | 구술자, 면담자, 면담참여인원, 회차별 면담일시장소, 면담내용, 면담후기, 면담 주제, 수집자료, 키워드, 특기사항 |
| | 사진 | 구술 내용 관련 사진, 구술 현장 사진 |
| 법적·윤리적 자료 | 공개와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트 구술 사업 시 제시되는 항목과 차별성 있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과 이주하게 된 이유와 관련된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음성자료, 영상자료와 같은 비중으로 언급되는 녹취문은 필수 생산 기록물에서 제외했다. 녹취문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상세 목록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면담 일지를 작성하며, 구술 내용 관련 사진 및 인터뷰 현장사진으로 음성자료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세목록과 면담일지, 사진 등의 자료는 구술기록 생산의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필수기록물이 되어야 하고 상세목록은 구술개요와 색인어, 시간대별로 어떤 내용을 구술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표기해서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구술기록 관리 개선방안

4.3.1 공공기관에서 구술기록 관리 의무화

앞서 구술기록이 지역에 맞는 구술기록 생산 유형을 범주화하고 생산하도록 공공기관기록

관리 지침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 책임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구술 사업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사업기관에 1차적 관리책임이 있다. 기록의 원자료를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결과물만이 아닌 구술기록 원자료를 수행단체로부터 이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술기록을 공공기관에서 이관 받고 관리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유실을 막을 수 있고 유일적 가치를 가지는 구술기록의 특성상 영구보존 대상이 되어 연구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생산단계를 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정책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이 생산된 기록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취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연구기관 및 지자체 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다.

4.3.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1차 관리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구술기록을 관리하더라도 구술기록의 유형 및 특성상 통합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통합관리는 원자료를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술기록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매개 역할까지 포함한다. 지역차원의 구술기록 관리기관 주체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 조건으로는 조사연구 기능을 갖추고 영구 보존시설 및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활용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리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생산단계부터 지침을 제안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4.3.3 지역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협력

지역 구술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 우선 지역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미래에 지역 구술기록이 활용 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체계적인 생산·관리의 1차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지역 구술 연구자, 기록관리 연구자 및 지역사 또는 부산학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다.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미래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필수적으로 생산해야할 구술기록 범위를 협의하고 1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역단체나 공동체가 의미 있는 기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역의 연구기관 중 한 곳이 지금까지 생산된 구술기록들의 목록을 취합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 앞으로 증가할 구술 사업에서 기관간의 내용적 중복을 피하고 연구주제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록취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술 사업과 구술기록의 목록, 내용, 소장처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목록 취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모든 방안에 앞서서 지역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지역 구술기록의 의미와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기록하는데 구술사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 기억이 함께 녹아나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해온 과정을 증언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역 구술기록은 지역이 자기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인문사회적 자산이 됨과 동시에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가며 도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술기록 생산 유형이 사업목적과 면담자에 따라 다르고 구술기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일회성 사업으로 단행본과 같은 가공된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구술기록 원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 등 문제점들이 있었다.

지역 구술기록이 연구 자료로써 가치 있게 생산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해 구술 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구술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술기록 생산과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체와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연구기관이 주도하여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 생산된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지방 기록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지역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협

의를 통해 다양한 생산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의 구술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구술 사업의 생산과 관리 현황 조사로 확장되어 지역 구술기록이 연구 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에 지역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이 생산 후 소멸되지 않고 앞으로 가치 있게 생산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제 학문 분야 및 기록관리 연구자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07). 구술기록물종합관리체계 방안 및 구술 방법론.
-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44.
-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 (16), 303-339.
- 김귀옥 (2016).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7), 11-44.
-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 설문원 (2015).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51-171.
- 손동유, 권용찬 (201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 염미경 (2006).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 237-262.
- 윤택림 (2012). 지방지(地方誌)와 구술사: 경기남부 지방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3(2), 203-237.
-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아르케.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 이호신 (2017). 구술사 연구와 기록관리, 녹취문을 넘어서. 구술사연구, (8), 97-129.
-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주혁 (2012). 근현대 지역자료(문헌과 구술자료)를 보는 시각과 현장조사 방법론: 무슨 자료를 왜,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구술사연구, 3(1), 47-70.

- 차철욱 (2016). 지방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로컬리티 연구. 호남문화연구, 60, 303-333.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출판사.
- 한국구술사연구회 (2014).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I: 기획과 수집. 서울: 선인출판사.
- 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II: 관리와 활용. 서울: 선인출판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경기: 역사비평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2016). 3단계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 결과물 표준화 및 이관 지침 안내.
- Richard J. Cox (1996). Documenting Localities, Lanham: Scarecrow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Step 3 Guide for Standardization and Transfer of Modern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Projects.
- Cha, Chul-wook (2016). Locality Studies as a Method of Local History Research. The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60, 303-333.
-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233-278.
- Choi, Jeong-eu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ocial Memory' and Oral Record Focused on the Role of Archivist in the Stages of Oral Record Collecting and Plann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3-55.
- Joo, Hyuck (2012). What kind of materials should be collected, why, from whom and how: the perspective for looking at local material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field work method.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3(1), 47-70.
- Kim, Gwi-Ok (2016). The Origins, Roles, and Challenges of Oral History in Studying Korean Modern History.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7), 11-44.
- Kim, Myoung-Hun (2010). A Study on the Meanings and Roles of Or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Archival Scienc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4), 73-112.
- Korea Oral History Study (2005). Oral history: Methods and examples. Seoul: Sun-in.
- Korea Oral History Study (2014). Oral history. 1: Planning and Collecting, Seoul: Sun-in.
- Korea Oral History Study (2017). Oral history. 2: Management and utilization. Seoul: Sun-in.
- Korea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Archive Terminology Dictionary. Gyeonggi: Historical

criticism.

- Kwon, Mi-hyun (2004). A Study on Archival methodology for Oral History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112-144.
- Kwon, Mi-hyun (2007).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303-339.
- Lee, Hosin (2017). Oral History Research and Record: Transcripts and Possibilities Beyond.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8), 97-129.
- Lee, Jung-Yeoun (2009). A Study on Modeling Meta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63-184.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7). A plan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oral records and its methodology.
- Richard J. Cox (1996). *Documenting Localities*, Lanham: Scarecrow Press.
- Seol, Moon-won (2015). Localities and Local Archives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151-171.
- Sohn, Dong-You & Kwon, Yong-Chan (2013). A Systematic Approach to Producing Or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135-158.
- Yeum, Mi-Gyeong (2006). Current Status and Tasks of Oral History in the Local Historical Society Research.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98, 237-262.
- Yun, Taekrim & Ham, Hanhee (2006). *Oral History methodology for writing new history*. Seoul: Arche.
- Yun, Taekrim (2012). Local Ethnography and Oral History Focusing on Southern G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3(2), 203-237.